

AUTHOR 심창섭 (Chang Seop Shim)

TITLE 리베르틴파에 대한 칼빈의 신학적 입장(6)
(An Evaluation of the Calvin's Position
on the Libertines Sect (6))

IN 신학지남(Presbyterian Theological Quarterly)
vol.57 no.2 (Summer, 1990):96-118

리베르틴파에 대한 칼빈의 신학적 입장 (Ⅵ)

沈 昌 燮
〈역사신학〉

<목 차>

I. 서론	V. 리베르틴파의 범신론 교리
II. 리베르틴파의 정의	VI. 기독교론
III. 리베르틴파와 초대교회 이단들	VII. 윤리
IV. 성경관	VIII. 결론

V. 리베르틴파의 범신론 교리

(다) 섭리의 세번째 양태

섭리의 세번째 양태는 섭리의 두번째 양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파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배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별히 세번째 양태는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섭리의 세번째 양태 속에서 칼빈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지도를 깨닫는다: “우리 인간들의 본성은 원죄로 인하여 타락하였기 때문에 ‘우리들의 판단은 왜곡되었으며 우리들의 의지는 늘상 하나님께 대항하며 악(惡)에 이끌리며 심지어 우리들을 악에게 내어주기까지 한다. 말하자면, 우리들의 모든 본성이 그야말로 타락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이러한 타락된 상태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배려 가운데에서 그의 크신 은총을 강하게 확인한다:

1) TAL, p. 247 (CO II 190 : Car nostre iugement est perues, nostres volut  est rebelle contre Dieu, encline et adonn e   mal).

결국,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며’(빌립보서 2:13)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조명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다.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지요,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누그러뜨리며 새로운 마음으로 변모케 하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다. 또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영감을 불어 넣어 주시는 이도, 모든 사탄의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힘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이 역시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재명을 준수하고 그 법도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불어넣어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다 (에스겔 36:27).²⁾

칼빈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신앙을 불어 넣으시고 그 신앙을 계속 성장시켜 나가는 분이시다. 실제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적 배려에 관한 칼빈의 주관심사라 하겠다. 따라서 그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는 “자신의 교회를 돌보는 하나님의 진정한 부성적(父性的)인 보호를 의미하며, 이는 또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과도 결부된다.”³⁾

칼빈은 전체적인 자신의 섭리 교리 가운데 보다 중요하고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리가 바로 하나님의 특별섭리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서는 온 인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지만, 특별히 교회를 다스리는데 있어서 보다 철저하게 돌보시기 위해

2) TAL, p. 248 (CO VI, 191 : Et pourtant c'est luy qui facit en nous le vouloir et le parfaire (phil. 2, 13), ce est luy qui nous illumine, pour venir   sa congnoissance: c'est luy qui nous tire: ce est luy qui forme nouveaux cueurs en nous, amollissant nostre duret : c'est luy qui nous inspire   prier: cest luy qui nous donne la grace et la force de vesister   toutes les tentations de Sathan: c'est luy qui nous facit cheminer en ses commandemens).

3) EP X, 3, p. 165 (CO VIII, 349 : Ultimo praesidium, vere paternum quo ecclesiam suam tuetur, cui praesentissima Dei ipsius virtus annexa est). cf. Inst. I. 107, 6, pp. 218~219 (CO II. 158~159).

서 불철주야 그 경계를 깨우치지 않으신다.”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애쓰고 계신다. 신자들의 보호에 관한 칼빈의 하나님의 특별 섭리 견해는 그의 「기독교강요」에서와, 논문 가운데에서는 Concerning the Eternal Predestination of God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어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 칼빈은 신자들이 머무르는 교회를 섭리의 “제일의 현장”(chief theatre)이라고 기술하고 있다.⁵⁾ 그후 1559년판 「기독교강요」에서도 칼빈은 역시 동일한 생각을 피력하면서 성경의 역사가 이러한 특별섭리에 속한다고 말한다: “사실 성경역사의 주요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심지어 자신의 신자들의 발이 돌 끝에 채어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길을 부단한 성실성을 가지고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데 있다(cf. 시편 91:12).”⁶⁾ 따라서 칼빈은 이러한 섭리의 세번째 양태를 “*pateram curam*”⁷⁾라고 생각한다.

칼빈은 신자들의 구원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적이며 부성적인 배려, 혹은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돌린다. 칼빈은 어떠한 단 하나의 칭찬받을만한 행동조차 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함을 지적하면서 “우리들이 무엇인가 선한 일을 행하고 이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기를 바라는 것은, 바로 신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새롭게 중생시키시는 성령의 초자연적 은총에서 비롯된다.”⁸⁾라고 주장한다.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의 이러한 세번째 양태 속에서 신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主權)을 힘주어 강조한다. 곧 하나님께서 구원을 포함한 신자들의 모든 삶의 방법을 직접적이고도 개별적으로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Inst. I.17,1, p.210 (CO II. 154: Postremo huc tendere, ut totum humanum genus sibi esse curae Deus ostendat; praecipue vero in regenda ecclesia(quam propiore intuitu dignatur) se exubias agere).

5) EP X.3, p.164(CO VII.349).

6) Inst. I.17,6, p.218 (CO II.159: Quin estiam hic pottissimus est scopus in historis biblicis, ut doceant tanta sedulitate vias sanctorum custodiri a Domino, ut ne ad lapidem quidem impingant).

7) Inst. I. 17,6, p.159), cf. EP X.3, p.163 (CO VII.349).

8) TAL, p.248 (CO VII.191: Ce que nous desirons de bien faire, et avons le pouvoir de l'executer, c'est de la grace supernaturelle de l'esprit, leque! nous regenere en une vie divine).

섭리의 세 가지 양태는 모두가 한결같이 중요하며 또한 하나님의 신적인 섭리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기는 하지만, 칼빈이 성령을 통해 신자들과 교회를 갱신하며,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활동을 섭리의 세번째 양태에서 설명하는 가운데 특별히 신적인 섭리의 목적을 이 세번째 양태에다 맞추고 있는 경향은 사실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Francois Wendel의 경우는 “그러나 자신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염려로 인해서 섭리의 목적이 바로 교회인양 생각할 필요는 없다.”⁹⁾고 단언적으로 말한다. 아마도 혹자는 교회가 섭리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결론적으로 말하지 않을지 모르나, 그러나 칼빈의 생각 가운데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의 특별한 목적이 분명하게 제시되는 특정 장소 가운데 하나를 차지하고 있음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칼빈은 교회를 향한 섭리를 설명하는 가운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로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보다 뚜렷한 증거를 통해서 자신을 현시(顯示)하신다.”¹⁰⁾

자신의 논문 Eternal Predestination of God에서 칼빈은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와 신자들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그는 경건한 자들이 해방을 당하거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¹¹⁾ 섭리교리를 수호하려는 의무감에서 먼저 섭리에 대한 Pighius의 왜곡된 이해에 맞서 섭리라는 용어를 정의한다. 그리고 난후에 칼빈은 한 개의 장 전체를 할애하여 섭리의 목적을 신자들과 관련하여 설명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논한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목적하는지를 우리는

9) Wendel, p.181.

10) EP X.3, p.164 (CO VII.349), cf. Inst. I.17,6, p.219 (CO II.159: I Speak not only concerning mankind; but, because God has chosen the church to be his dwelling place, there is no doubt that he shows by singular proofs his fatherly care in ruling it; Non de generehumano tutum loquor; sed quia Deus ecclesiam sibi in domicilium elegit, not dubium est quin paternam in ea regenda curam singularibus documentis ostendat). cf. SP, p.226.

11) EP X.1, p.162 (CO VII.347: ne quid pias mentes impediatur vel conturbetur).

알 수 있어야 한다. 그 첫번째 목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들의 구분별한 자신감을 내어 버림으로써 하나님을 경의하며 그를 의론케 하는 것이며, 그 두번째 목적은 고요하고도 차분한 평정 상태로 하나님 안에 안식하며 우리를 에워싼 무수한 위협과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파멸들을 확고한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쉽게 앞잡아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겠다.¹²⁾

이 진술에서 칼빈은 분명히 두 가지의 경우를 가지고 신자들과 관련된 섭리의 목적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칼빈에 따르면, 섭리교리는 특별히 *Heilsgeschichte*의 목적과 결부된다. 그리고 자신의 논문 *The Eternal Predestination of God* 과 「기독교강요」에서 칼빈이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섭리의 특별한 목적에 대해서 「리베르틴에 대한 반론」에서는 그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반론」속에서 칼빈이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 배려를 세번째 양태로 취급한 것이 아마도 후대 이 두 작품에서 나타나는 섭리의 목적에 관한 그의 견해에 이바지했을 공산이 크다.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이들에 대한 엄청난 배려에 관하여 칼빈이 고찰한 내용이 섭리의 목적과 연관되어 보다 확대된 것이다.

이러한 세번째 양태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신자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과 신자들의 구원에 관한 전체 과정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적 배려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난 후, 칼빈은 인간의 선택과 자유 의지의 본성에 주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들의 선택과 의지의 본성을 주목해야만 한다. 그 까닭인즉, 비록 이 선택과 의지 양자 모두 죄로 말미암아 박탈당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를 쇄신하여 악(惡)한 것을 선(善)하게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분간할 수 있으며 무엇

12) EP X, 5, p.166 (CO VIII, 350: guomodo, et in quem finem consideranda sit Dei provipentia, tenere. Prior finis est, ut nos temeraria confidentia exutos tum in Dei timore contineat, tum ad invocationem expergefaciatur. Alter vero, ut sedatis tranquillisque animis in Deum recumbere, et quae nos circumstant pericula nobisque assidue centum mortes minantur, Secure fortititer que contemnere doceat).

이든지 의지를 두고서 자연은총에 속한 것들을 행할 수 있다.”¹³⁾ 이러한 진술 외에, 섭리의 세번째 양태를 설명하면서 그 밖에 다른 곳에서 칼빈이 이 문제를 다룬 곳은 없다. 이로써 칼빈이 얼마나 리베르틴파의 범신론적 결정론에 대하여 자유의지라는 인간 단독의 자연은총을 수호하지 않으면 안되었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칼빈이 “우리 인간들의 선택과 의지의 본성”¹⁴⁾에 대해 한정된 개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인간의 의지의 본성은 결코 말미암아 타락된 까닭에 잘못되며 악(惡)을 행할 경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선(善)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로지 이를 가능케 하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적 배려라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서 모든 선한 일들을 시작하시는 까닭에 모든 공로는 오직 하나님께 속할 따름이다.

칼빈이 모든 만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주장하면서도 사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어떠한 관여도 허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칼빈의 섭리(또한 예정론) 교리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의 전적인 자율적 행동이 허여된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의 상이한 두 본성에 관한 그의 견해를 다시 언급함으로써 설명될 수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동기는 언제나 선(善)한 반면에 인간의 동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악(惡)으로 기울어지기 마련이다.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지은이시지 결코 악(惡)한 행위의 장본인은 아니다. 리베르틴파는 악(惡)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면서 이를 보고 선(善)하다고 한다. 칼빈에게는 이런 사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또한 세번째 양태에서, 칼빈은 리베르틴파의 범신론적 결정론에 반

13) TAL, p.248 (CO VII, 191: Mais ce pendant li nous faut noster que de nature nous avons en nous election et volonte. Au reste d'autant que par le pech l'une et l'autre est depravee: nostre Seigneuteur les reforme et les change de mal en bien. Ce donc que nous sommes propres à discerner, à vouloir, à faire cecy ou l'ce, c'est de don naturel).

14) TAL, p.248 (CO VII, 191)

대하는 두 가지 논점을 밝히고 있다. 그것이 바로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돌보심의 배려와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은 신자들의 구원을 착수하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섭리적 목적에 따라서 이들을 보존하신다. 따라서 신자들의 구원의 성취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적 활동에 의존된다고 하겠다. 이와 동시에, 인간의 선택이 지속적으로 보장되며 성령을 통해서 분별하여 선(善)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된다. 이것이 리베르티파의 결정론에 반대한 칼빈의 주장이다. 리베르티파의 결정론에 의하면, 모든 것들은 단번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신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적 배려도 필요 없으며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 역시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명백한 왜곡에 맞서서 칼빈은 성령을 통하여 신자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설명하는데 「반론」의 방향을 맞추고 있고 동시에 인간이 지니는 선택과 의지의 본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B) 섭리 대(對) 결정론

칼빈의 섭리교리 가운데에서는 일단은 부단한 긴장을 엿볼 수 있다. 하나님의 철저한 지식과 주권에 대한 그의 강조와 인간의 자유의 지체 본성에 대한 칼빈의 강조 사이에 놓인 긴장관계가 바로 그것이다. 칼빈은 모든 만물의 각 세세한 것들까지 하나님의 우주적이고도 섭리적 배려로 돌보고 계심을 주장하지만, 한편으로 또한 인간의 선택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다른 말로 바꿔말해서, 칼빈의 주장이 다분히 결정론적인 상을 품기에는 반해 그 자신은 여전히 리베르티파의 결정론을 반박하며 자신의 섭리 견해를 주창한다.

칼빈은 자기의 섭리교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세계창조 및 그 원작성(原作性)과, 그리고 자신의 피조물들에게서 펼쳐지는 삶과 사건 속에서의 하나님의 간단없는 지속적 개재(介在)라는 두 가지 주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하였다. 칼빈은 따라서 사건(事件)을 우연이나 운명의 탓으로 돌리는 어떠한 여지도 허락하지 않는다 하여 모든 만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전반적인 배려를 칼빈이 힘주어 주장하는 것은 하마터면 모든 것들의 지은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리베르티파의 주장

처럼 될 뻔하였다.

칼빈의 입장을 보다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는, 칼빈이 신관과 창조관에 대한 자신의 교리와 리베르티파 교리와의 차이점들을 구분지은 것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리베르티파의 신관은 신(神)으로서 모든 피조물들 속에 일체히 거(居)하는 한 영(靈)의 존재를 주장함으로써 다분히 범신론적이며 신과 인간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와는 반대로, 칼빈은 그러한 이단적 주장의 타당성을 배격하고 대신에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 간의 명확한 분리를 주장한다. 인간, 천사, 심지어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의지의 단순한 도구들일 뿐이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특수한 질서에 따라서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에게 설정된 재 조건 하에서 행동할 수 있는 각자의 개별적 의지 및 자유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점에서 가히 결정론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칼빈의 섭리구조 내에서 인간 의지의 정도 문제가 불가피하게 제기된다.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주권을 주장하면서도 또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자기 모순을 해결하는 데에는 이 주제에 대해 훌륭하게 다루고 있는 Verhey의 논문이 도움이 된다.¹⁵⁾

Verhey는 “리베르티파에서 말하는 신적인 영(靈)의 임의적인 전능성(全能性)”과 칼빈이 제시한 섭리 사이에 한가지 현격한 차이점을 지적하고 있다.¹⁶⁾ 리베르티파는 그것이 선(善)한 것인지 혹은 악(惡)한 것인지 그 성격이 불분명한 영(靈)을 믿고 있는 바, 이 불분명한 영(靈)으로부터 모든 만물들이 직접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처럼 전적인 결정론 교리 하에서 리베르티파가 악(惡)을 비실체적 존재로 일축해 버리기란 쉬운 일이다.

이와는 반대로, 칼빈의 하나님은 특단적이거나 아니면 애매모호하게 처신하지 않고 자신의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본성에 따라서 수미 일관되게 행동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운행에 관한 자신의 섭리 가운데 피조물들의 행위를 감찰하시면서 이들 피조물들이 근거로 하는

15) TAL, p. 249 (CO VII. 192).

16) Verhey, pp. 198~205.

“자연의 이치”를 보존시켜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들에게 지시하지만 하나님의 우주행은 결코 그 피조물들이 지닌 자체 성향에 거스리도록 피조물들을 방해하는 법이란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보존하는데 전념하고 계시며 Verhey의 말마따나 “그러한 섭리는 만물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만물을 유지시켜 준다”¹⁷⁾고 하겠다.

두번째 섭리, 혹은 “특별법령”은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 정의, 그리고 그 판단에 이바지하게끔 만든다. 칼빈은 다시 모든 만물의 출처를 하나님으로 가리키지만 두 가지 명확한 차이점을 지적함으로써 리베르틴파의 결정론을 반박한다. 악(惡)한 행위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돌이 아닌 사고하는 존재들인 까닭에 이 세상 속에서 가능하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부여해 주셨던 본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칼빈은, 사탄 및 사악한 자들의 자유와 이들이 이러한 자유 가운데 행위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인하고 있다.”¹⁸⁾ “방금 지적한 차이점과 다소 관련된 두번째 차이점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들이 제작기 자유로운 의도(意圖)에 따라 행동한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유가 마치 자신의 일정한 목표와 목적에 따라 처신할 수 있는 능력인 것 처럼, 사탄과 인간의 자유 역시 자신의 일정한 목표와 목적에 따라 처신할 수 있는 능력이다.”¹⁹⁾ 하나님의 목적이란 심지어 인간의 사악함마저 수반한 간단한 배터를 통해서 자신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한다.²⁰⁾

또한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다스리시는 섭리의 세번째 양상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제사건과 제행위를 결정하는 섹다른 본성을 나타내 준다. 신자들에 대한 배려와 그들의 중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칼빈은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를 결정론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거부한다. 여기서 다시금 칼빈은 이러저러한 것을 자신의 의지대로 바랄 수 있을

17) Verhey, p. 200.

18) Verhey, p. 200.

19) Verhey, p. 201.

뿐 아니라 또한 행동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지적한다.²¹⁾ 앞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인간이 선한 일을 행하고자 바라는 경우 칼빈은 이러한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의 은총의 탓으로 본다. 반면에 인간이 악한 일을 행하고자 바라는 경우 그것은 원죄로 말미암은 타락의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이행 대립적 이분성(二分性)이 서로 나란히 존립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선함에 따라 역사하시며,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자유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이다. Verhey가 고찰한 바대로, “신자들은 자기들의 자유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의 결과에 따른 것이지 결코 자기들 자신의 자유가 아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자유는 인간 자유의 부단한 원천(源泉)이며 결코 인간의 자유와 배치하지 않는다.”²²⁾

인간이 소지한 자유와 책임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主權)은 “자유에 대한 칼빈의 섹다른 개념, 즉 자신의 일정한 목표와 목적에 따라 처신하는 자유”²³⁾에 모두 다 그 기반을 두고 있다. 비록 하나님의 능력이 전면(全面)적이고도 주권적이라고 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적인 행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여하신 인간 자체의 성향에 근거하여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칼빈은 분별없이 모든 사물들을 하나님의 행위의 소산으로 돌리는 리베르틴파의 결정론을 단연코 반대한다. 그러나, 칼빈의 섭리교리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엿보인다. Verhey가 인식한대로, 칼빈의 입장은 “결정론을 반대하지만 그러나 자유의지론자(비결정론자)들의 선택의 자유 역시 거부한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 양측 모두가 지니고 있는 자유의 어느 한편 여하에 달려있는……일종의 미묘한 양자택일적 대안(代案)이라고 하겠다.”²⁴⁾

20) Verhey, p. 201.

21) cf. Meiles, pp. 83~84: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신다. 사악한 자들도 무론하고 인간의 생각과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

22) Schulze, p. 32: 인간은 외연세계(external things)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의지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기 마련이다. cf. II, 4, 2, 6~8 (CO II, 227~229).

23) Verhey, p. 203.

24) Verhey, p. 205.

단일에 후자가 리베르틴파에 대한 칼빈의 미묘한 신학적 긴장관계, 즉 결정론과 섭리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한다면 칼빈의 사고구조를 고찰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미 우리가 논의한 바 있지만, 칼빈의 섭리교리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양측의 자유에 대한 이분법(二分法)적이고도 의견상 모순되어 보이는 독특한 개념을 지워버릴 수 없다는 인상을 준다. 하나님은 모든 사물들에 대해 최종적인 지시를 내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선(善)과 악(惡)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소지하고 있다.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적 주권에 대해서 “후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지만 내 생각에는 전혀 그럴 수 없다.”²⁵⁾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 자신이 소유한 성향대로 행할 수 있는 본성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칼빈의 역설적인 주장은 상이한 여러 학문적 논의의 주제로 등장하였다. Herman Bauke의 경우 이를 두고 *Complexio oppositorum* 이라고 하였다.²⁶⁾ 또한 칼빈의 사상은 모순적 관계(Lüttge), 상보적 관계(Doumergue), 일종의 변증법적 긴장(Bauke) 등의 양상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Partee가 지적한 바대로, 이러한 언급들은 단순히 칼빈교리의 이율배반적 특성을 설명해 주고 있을 따름이다.²⁷⁾

Francois Wendel은 사변적 논리의 토대를 근거로 해서 칼빈의 신학이 해결될 수 없음을 언급하였다.²⁸⁾ 그렇다고 또한 칼빈의 사상이 비이성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도 없다. 칼빈 스스로 이성적인 논리를 하나님의 은사로 보고 있고,²⁹⁾ 인간의 이성을 그 근거로 하여 인간과 금수가 구별된다고 주장했다.³⁰⁾ 또한 후자는 칼빈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세네카, 키케로 등의 합리적 철학자들의 사상을 잘 알고 있고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칼빈의 저작물 속에서 볼 수 있을

25) Verhey, p. 205.

26) TAL, p. 253 (CO VI. 194 : On demandera s'il se peut rien faire malgré Dieu, le confesse que non).

27) Bauke, 1922, p. 27, 16~19.

28) Partee, p. 174.

29) Wendel, pp. 358~359.

30) Comm Isa., 28 : 29 (CO XXXVI. 483).

것이며, 그리고 이들의 사상이 칼빈의 사상에 이바지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칼빈의 사상이 이들의 사상에 의해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예컨대, 칼빈은 이따금씩 열렬한 플라톤주의자인 어거스틴의 전향을 따르면서, 플라톤을 적절한 철학자의 한 예로 보고³¹⁾ 자신의 신학의 한 근거로 사용하였다.³²⁾ 그러나 칼빈의 신학사상에 대한 결정적인 해결은 플라톤이나 혹은 어거스틴에게서 발견되지 않는다. 칼빈은 단지 이들을 부차적 내지는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섭리에 대한 칼빈의 양태가 플라톤의 섭리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세 가지 양식(樣式)³³⁾ *providentia prima*, *providentia secunda*, *providentia tertia* 과 유사함을 엿볼 수 있다. 첫번째와 두번째 양식은 특별히 칼빈의 일반섭리와 유사하다. 특히 인류에 대한 배려를 다루고 있는 세번째 양식은 인간에 관한 칼빈의 특별섭리 개념과 아주 흡사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자기 자신이 전혀 플라톤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어거스틴을 지나친 플라톤주의자라고 비난한다.³⁴⁾

물론, 당대의 철학적 사조에 의해 칼빈이 영향 받았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전혀 다른 출처로부터 기원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칼빈의 사상을 형성시킨 주요한 요소는 어떤 것일까? Partee의 견해는 이 질문에 대해 좋은 해답을 제공하고 있다 :

칼빈은 자신의 섭리교리와 예정론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칼빈의 신학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결정론적 개념

31) Inst. II. 2, 12, p. 7p. 20~271 (CO II. 195~196) ; Inst. II. 2, 17, pp. 276~277 (CO II. 199~200) ; Comm. Ps. 119 : 73 (CO XXXII. 246).

32) Comm. Gen. 2 : 18 (CO XXIII. 46).

33) McClelland, 1965, p. 47. Smits는 「Saint Augustin dans l'oeuvre de Jean Calvin」 속에서 칼빈이 어거스틴에게 탄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에게서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한편, Snell(1970, pp. 1~8) 경우는 어거스틴이 칼빈에게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칼빈 사상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하여 다소 정확히 진술하고 있다.

34) Zanchius, 1977, p. 154.

으로부터 유래하는 일종의 이성적인 추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릇된 주장이다. 이뿐 아니라, 칼빈은 우리들의 이성이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성은 반드시 부인(否認)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칼빈 철학의 토대라고 할 것 같으면, 이성(理性)이 아니라 신자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증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그의 깨달음이라고 하겠다.³⁵⁾

따라서, 섭리에 관한 칼빈의 논거는 인간의 한정된 지식에 기초로 한 합리적인 주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성경의 권위에 의존하고 있다고 결론짓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사건들이 인간에 의해 그릇되고 온당치 못하게 저질러진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이러한 사건들은 하나님의 올바르고도 공정한 행위인 것이다. 아마도 일부의 혹자들에게는 이 말이 언뜻 역설적으로 들릴런지 모른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 사건들이 반드시 옳다고 판단되는 것을 찾을 수 있게끔 잠시만이라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듬어 볼 수 있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을 만큼이나 지나치게 범법적(犯法的)인 것이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우리가 교관되고 완악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기준에다가 자기 자신을 적용시키시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행위에 관한 전체 정의를 구체적으로 찾아 볼 수 있는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³⁶⁾

뿐만 아니라, 칼빈의 섭리교리에서는 결국 하나님과 인간간의 의지(意志)의 역설은 감춰져 있거나, 혹은 하나님의 신비한 회의에 속한다고 결론짓는다: “모든 문제는 우리들에게는 비밀에 부쳐진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조사할 필요가 없다.”³⁷⁾

35) Comm. John, 1: 13 (CO XLVII, 4).

36) Partee, p. 179.

37) EP, X, 7, p. 169 (CO VIII, 353: Quae perperam et iniuste ab hominibus fiunt, eadem recta et iusta esse Dei opera. Hoc si prima specie qui-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의 이와같은 양상을 「기독교강요」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그러므로, 이처럼 불신(不信)하며 경계하는 자들로 하여금 피로 물든 안에는 상궤(常軌)에서 벗어난 어떠한 동력, 행위, 또는 운행도 존재하지 않으며, 한편 이러한 피조물들은 가령 하나님의 자의적이고도 기쁘신 작정에 따라서 발생(發生)한 것처럼 그의 신비로운 비밀 계획에 의해 다스려지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상가 하도록 하자.³⁸⁾

또한 칼빈은 스토아학파의 운명 개념을 거부하면서, “일반적으로 ‘운명’이라고 불리우는 것 역시 감춰진 이치(理)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또한 ‘우연의 사건’이라는 것도 단지 그 원인과 이유가 감춰진 경우에 한해서 그처럼 부를 따름이다.”³⁹⁾라고 대답한다. 칼빈은 이따 1539년 판 「기독교강요」에서 이와 동일한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대체로 현재 발생(發生)하는 제사물들의 이치(理), 이유, 목적, 그리고 그 필연성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 감추워져 있는 바 인간의 생각으로서 는 파악되지 않는다.”⁴⁰⁾ 같은 견해가 1559년 판에서도 반복되어 나

busdam esse paradoxum videtur, Saltem ne int ita fastidiosi, quin pauli per mecum sustineant ex verbo Dei inquirere, quid sentiendum sit. caeterum, ne quidquam stulta pertinacia tueamur, quasi Dei proprium, quod illi temere ex sensu nostro afflictum fuerit: primum audienda est scriptura, imo tota inde operum Dei petenda est definitio).

38) TAL, p. 253 (CO VI, 194: le tout est que nous n'aillions point enquerir sur sa providence, qui nous est secrette).

39) Inst. I, 16, 3, p. 201 (CO II, 147: Ab hac igitur infidelitate qui cavere volet, memoria semper teneat, non erraticam vel potentiam, vel actionem, vel motionem esse in creaturis; Sed arcano Dei consilio sic regi, ut nihil contingat nisi ab ipso sciente et volente decretum).

40) Inst. I, 16, 8, p. 207—208 (CO II, 151: etenim fortasse quae vulgo fortuna nuncupatur, occulto quoque ordine regitur: nihilque aliud in rebus casum vocamus, nisi cuius ratio et causa secreta est).

타난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반드시 덧붙여야 할 사실은, 비록 하나님 아버지의 부정적 은총과 은혜 혹은 그의 준엄한 심판이 섭리의 전체 과정 속에서 이따금 뚜렷이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제 사건의 제 원인은 감추어져 있다는 점이다.”⁴¹⁾ “그러나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방법이 일종의 깊음(abysse)으로 적절하게 불려지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감추어진 상태 속에서도 우리가 경건함으로 정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까닭에서이다.”⁴²⁾

끝으로, 칼빈의 섭리는 그것이 성경에 계시된 것을 제외하고서는 여전히 신비(神秘)로 남아있다. 앞서 이미 인용한 바대로, 칼빈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행위에 관한 전체 정의를 구체적으로 찾아 볼 수 있는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⁴³⁾고 주장한다. 따라서 칼빈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역설적 논거의 근거를 성경의 확실성에 두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감춰지거나” “신비한” 이유는 인간 이성의 제한된 파악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에 근거해 볼 때, 칼빈에게는 모든 것들이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보인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놀라울이만치 명확하다.”⁴⁴⁾

따라서 섭리의 복잡성에 대한 칼빈의 결론은 두 가지 요소로 귀결된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난 역설적인 요소는 인간 이성의 관점에서 신비적이거나 혹은 감추어져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계시된 바대로 그것은 평이하고도 자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에 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제한된 이

41) Inst. I. 16, 9, p. 208 (CO II. 152: sed quoniam eorum quae eveniunt, ordo, ratio, finis, necessitas, ut plurimum in Dei consilio latet, et humano opinione non apprehenditur).

42) Inst. I. 17, 1, pp. 210—211 (CO II. 154: Iam et hoc addendum est, quamvis aut paternus Dei favor et beneficentia, aut iudicii severitas saepe in toto providentiae cursu reluceat, interdum tamen eorum quae accidunt occultas esse causas).

43) Inst. I. 17, 2, p. 213 (CO II. 155: At mundi gubernandi admirabilis ratio merito abyssus vocatur; quia, dum nos latet, reverenter adoranda est).

44) EP X. 7, p. 169 (CO VIII. 353: primum audienda est scriptura, imo tota inde operum Dei petenda est definitio).

성으로는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는 까닭에 인간은 하나님께 존경하는 태도로 겸허해야 한다.⁴⁵⁾

(2) 두번째 결과

칼빈이 공박하고 있는 리베르틴파의 범신론적 결정론에서 귀결되는 두번째 결과는 윤리적 문제와 관련된다. 리베르틴파에서는 한 영(靈) 교리에 대한 결정론적 이해를 확대시킴으로써 행위의 제원칙을 완전히 목살시켜 버린다. 칼빈이 진술하고 있는 바대로, 리베르틴파가 말하는 바 “만일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치의 뜻으로 보고 인간은 아무런 것도 행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양심은 이제 그리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⁴⁶⁾ 실제로, 칼빈이 비난하고 있는 것처럼, 리베르틴파의 중요한 목적은 저들이 제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동하기 위해서 양심의 활동을 휴지(休止)시키는 것이다. 칼빈에게는 이러한 가증스런 결론이 아무런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는 까닭에, 그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뜻에 따르고 또한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지 않는 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⁴⁷⁾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제기함으로써 이들을 반박한다. 이때 칼빈은 죄를 지면 하여 인내하기도 하시며 분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수많은 성경귀절들을 실례로 제시한다. 여기에서 칼빈은 자신의 계명에 인간들이 순복할 것을 명하고 계시는 분으로 하나님 상(像)을 그린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대에 인간들이 부응하도록 하기 위해 율법이 라는 형태와 성경의 여러 메시지를 통해 그들에게 무수한 많은 증거들을 보여 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의로우신 재판관이기 때문이다.”⁴⁸⁾

45) TAL, p. 245 (CO VII. 189: Ce que l'écriture nous montre tant évidemment que merveilles).

46) Inst. I. 17, 1, 2, pp. 211—212 (CO II. 154—155).

47) TAL, p. 250 (CO VII. 192: qu'en attribuant ainsi tout à Dieu, comme font les Libertins, et disant que l'homme ne fait rien, il ne sera plus question de faire conscience de rien).

48) TAL, p. 251 (CO VII. 192: à fin que nous apprenions de servir à Dieu, d'adhérer à lui, d'obéir à sa volonté, de ne point provoquer son ire en l'offensant).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도하기 위해 율법과 성경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선(善)과 악(惡)을 가르치는 양심을 인간 내면에 불어 넣으셨다. 이 양심은 이교도는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서, 양심은 “모든 이들의 심비에 새겨진 율법이다.”⁴⁹⁾ 양심의 소유로 말미암아 인간은 핑계치 못하는 것은, 자연법(natural law)에 따라 양심이 “올바른 삶의 행위에 관한 규율”⁵⁰⁾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또한 칼빈은 「기독교강요」에서, 지켜야 할 율법을 소유한 사람들은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심판받게 될 것이고,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양심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을 자세히 설명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법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인간으로 하여금 핑계치 못하게 하는 것으로써……자연법은 의(義)와 불의(不義)를 확연하게 구별하며 무지함이라는 변명을 인간에게 핑계구실로 허용하지 않는 양심의 그와 같은 파악을 말하며, 한편으로 자연법은 그들 스스로의 증언을 통해 인간들의 죄책감을 입증시켜 준다.”⁵¹⁾ 따라서, 인간은 두 가지 이유에 의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를 안내하기 위해서 그들에서 율법을 제공해 주셨으며, 또한 인간의 모든 마음 속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책임지워 주는 양심을 새겨 놓으신 것이다.

그와같이 수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리베르틴파는 죄에 대해서 우려하는 법이란 전혀 없고, 대신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소하기를 원하신다면, 자신이 우리 안에 모든 것을 행하신 까닭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고소해야만 할 것이다.”⁵²⁾라고 말한다. 리베르틴파는 모든 것을 자기들의 범신론적 결정론에 따라 추론하고 모든 행위의 탓을 하나님께로 돌림으로써 자신들에게 입하는 비난으로부터 벗어나고자 꾀한다. 우리가 이미 앞서 논의한 바처럼, 칼빈

49) TAL, p. 251 (CO VII. 193 : est iuste iuge, qui ne peut porter l'iniquité).

50) TAL, p. 251 (CO VII. 193 : une loi imprimée en leurs cœurs).

51) Inst. II. 2, 22, p. 281 (CO II. 203 : vitae probe instituendae regula).

52) Inst. II. 2, 22, p. 282 (CO II. 204 : quod sit conscientiae agnitio, inter iustum et iniustum sufficienter discernentis, ad tollendum hominibus ignorantiae praetextum, dum suo ipsorum testimonio redarguntur).

의 신학에서는 이것이 용납되지 않는다. 인간의 자유에 대해 유념하고 있는 칼빈으로서는 “우리 인간들 자신의 행위에 관한 한, 이에 대해 우리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꼼꼼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⁵³⁾고 응수한다. 따라서 칼빈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율법과 성경,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양심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칼빈은 양심의 역할을 부인하는 것이 결국 죄가 된다는 이유를 근거로 해서 인간행위에서의 양심의 역할을 부인하는 리베르틴파를 맹렬히 반대한다. 그 외에 빠뜨릴 수 없는 다른 이유는, 양심의 역할을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활동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⁵⁴⁾ 리베르틴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양심의 윤리적 기능을 경시하는 것은 우리에게 제시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셈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떠넘기려는 것은 너무나도 분별없이 감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 칼빈의 생각처럼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하시며, 또한 무엇을 허락하시고 무엇을 정리하시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조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⁵⁵⁾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되는 자신의 뜻을 성경 안에 이미 정해 놓으신 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알 수 있는 내용의 전 부인 것이다.

「리베르틴에 대한 반론」 제15장에서 양심의 문제를 다루는 가운데, 칼빈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간의 책임성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그 한 예로,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수많은 성경 구절들 안에 자신의 뜻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각 사람 마음에 양심을 심어 놓으심으로써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다. 이뿐 아니라, 양심을 제거해 버리고 모든 악한 행위로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무런 죄

53) TAL, p. 252 (CO VII. 193 : Dieu s'accuse le premier, s'il nous veut accuser: veu qu'il faict tout en nous).

54) TAL, p. 252 (CO VII. 194 : que touchant les oeuvres que nous faisons, nous avons à considerer la volonté de Dieu, selon qu'il la nous declare).

55) TAL, p. 250 (CO VII. 192).

악성도 느끼지 않고 죄를 범하는 것과 다름 아니며 또한 감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일종의 오만한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 칼빈에 의하면 우리는 오로지 우리에게 계시된 것 만큼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이러한 계시를 넘어서신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신비스럽게 다만 감춰져 있을 따름이다.

(3) 세번째 결과

「리베르틴에 대한 반론」 제16장에서 칼빈이 다루고 있고 세번째 결과는 두번째 결과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리베르틴파는 하나님께서 제멋대로 내버려 두고 계신다는 것을 구실로 삼아, 이와 동일한 원리로부터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도출해 내었다.”⁵⁶⁾ 양심의 필요성을 완전히 근절시킨 리베르틴파는 자연히 판단은 필요 없는 것이라고 결론 짓는다. 칼빈은 리베르틴파가 판단에 관한 자기들의 입장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모든 것으로부터 유익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⁵⁷⁾라고 진술한 사실을 지적한다. 칼빈도 이 진술의 타당성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칼빈의 해석은 리베르틴파의 그것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칼빈에 따르면, 크리스찬이 모든 상황에서 유익을 얻는 방법이란, 자신이 역경의 처지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에 보다 일치하도록 처신하는 것이다. 다른 이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경우, 크리스찬들은 인간 본성의 연약함을 십사속고하여 보다 겸허한 자세로 더욱 더 자기 자신을 내심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하는 것이다. 칼빈이 단호하게 지적하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은 악(惡)을 못본 체하거나, 혹은 악(惡)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다는 “악(惡)을 바로 인식하여 피하는”⁵⁸⁾ 법을 배워야 한다.

리베르틴파는 또한 판단에 관한 자신들의 부인(否認)을 지지하기 위해서 성경구절들을 언급한다. 그들이 “비판하지 말라”(마태복음 7:

1)라는 말씀을 인용하지만, 칼빈에 따르면 이들은 이 말씀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잘못 해석하거나, 아니면 주의깊게 관찰하지 못했다. 칼빈은 자신의 주석 속에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헛웃고 비방하며 증상모략을 일삼는 인간의 타락으로 빛은 열망”⁵⁹⁾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설명한다.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엄격한 경계선”⁶⁰⁾이지만 그렇다고 전혀 판단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니다. 「반론」 중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논의하는 전후문맥 속에서, 칼빈은 이 말씀이 ‘자신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은 것들을 판단함으로써 강탈,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려는 자들의 무모함을 꾸짖기 위해’⁶¹⁾ 쓰여졌다고 설명한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미 판단하신 것들에 한해서만 판단할 수 있으며,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의 판단을 유보시키고 하나님께서 이미 표명하신 바를 다만 재가(裁可)할 뿐이다.”⁶²⁾ 칼빈은 여기서 리베르틴파의 결정론이 끼친 두번째 결과에 관한 자신의 논의의 한 주제를 반복하여 되풀이 언급한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성경, 양심 등의 형식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미 표명하셨는 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노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과 명백히 모순되는 것을 못본 체 한다는 것은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보다 나은 판단자(judge)”⁶³⁾로 여기는 것과 다를 바 아니다.

이뿐 아니라, 칼빈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마태복음 7:5)라는 성경구절에 대한 리베르틴파의 그릇된 해석을 증거로 제시한다. 앞서 논박한 구절에서처럼, 이 성경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먼

59) TAL, p. 255 (CO VII. 195).

60) Comm Matt. 7:1 (CO XLV. 214).

61) Comm. Matt. 7:1 (CO XLV. 214).

62) TAL, p. 256 (CO VII. 196: c'est pour reprendre la temprité de ceux qui usurpent l'auctorité de Dieu, en iugeant des choses qui leur sont incongneues).

63) TAL, p. 256 (CO VII. 196: nous ne faisons pas iugement de nous: mais seulement ratifions celuy que Dieu en a donné).

56) TAL, p. 253 (CO VII. 194: nous n'aillions point enquerir sur sa providence, qui nous est secrette: puis que nous savons ce qu'il demande de nous, et ce qu'il approuve ou condamne).

57) TAL, p. 254 (CO VII. 194: soubz ombre de se alisser conduire par Dieu: ilz deduisent de se mesme principe, que c'est mal fait de iuger).

58) TAL, p. 254 (CO VII. 195).

저 우리들 자신을 판단한 연후에 한해서만 판단할 수 있음을 우리들
에게 경고하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한다. 칼빈이 마태복음 7:1을 그
의 주석에서 논의하는 가운데, 올바른 크리스찬들은 “언제나 자기 자
신을 검토하는 일부더 시작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선
(善)과 악(惡)의 모든 차이점들을 철저히 파기시키기 위한 구실로 그
와같이 온건하게 완화시키려고 열망하는 작자들에 의해 그리스도께서
직접 충고하신 이 성경구절은 철저히 오용되고 있다”⁶⁴⁾는 칼빈의 잔
술은 아마도 리베르틴파와 같은 부류(部類)의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반론」에서는, 칼빈은 “위선적 행위를 판단하지
않는 것과 전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
한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우리들 자신에게 대하는 것보다 더
욱 가혹하게 우리들의 이웃을 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우리에게 판단하라고 명하고 계신다”⁶⁵⁾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또한 그것이 요구되
는 경우 그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의무인 점, 역시 칼빈
에게 있어서 사실이다:

우리가 우리들 자신의 견해에 입각하여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온당치 못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
미 판단하신 것을 우리는 선(善)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것에 전족
으로 동의할 만큼 그것을 승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하
나님 자신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이 선(善)하신 분이며 공정한
판단자(judge)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그
분의 훈계에 따라 사악한 모든 것들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며,
그 열매에 따라 나무가 선(善)하다든가 혹은 악(惡)한지를 판
단하도록 하자.⁶⁶⁾

64) TAL, p. 259 (CO VII. 196).

65) Comm. Matt, 7:1 (CO XLV. 214).

66) TAL, p. 257 (CO VII. 197: Or il y a bien grande difference entre ces
deux choses: de ne point iuger par hypocrisie: ou ne point iuger du
tout. Nostre seigneur nous commande de iuger en verité, n'estans
point plus severes envers noz prochains, que contre nous mesmes).

리베르틴파의 범신론적 결정론이 끼친 두번째 및 세번째 결과물
을 의하는 가운데, 칼빈은 되풀이하여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로 되풀이
간다. 칼빈은 두번째 및 세번째 결과물 그 본질상 해악스러운 것으로
간주할 뿐 아니라, 이러한 비윤리적 결론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
리적 주권을 무시하며 모독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아무런 양심도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는 데서 빚어지는 윤리적 결과
들에 대해 리베르틴파는 못본 체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 실행하
시고 말씀을 통해 공표하신 모든 결정들을 파기하고 있고, 심지어 전
에 내리셨던 판단들마저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⁶⁷⁾
칼빈이 「반론」 제15장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으로 돌리고 양심과 판단을 제거해 버리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
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는 하나님의 활동
을 축소시키려는 것에 다름아니다.”⁶⁸⁾ 리베르틴파가 영위하는 삶의
유형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 배려에 반대한다. 이는 하나님
의 뜻이 우리들에게 계시된 그의 계명들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기 때
문이다. 계명들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결국 리베르틴파에서 추종하는
에피큐로스 학파적 삶의 형태로 이끌게 된다: “리베르틴파의 유일한
즐거움이라면 누구의 아무런 배려(간섭)도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
는 것이다.”⁶⁹⁾ 따라서 양심과 판단을 완전히 근절시켜 버린 리베르틴
파의 신앙에 대한 칼빈의 반대에는 윤리적인 문제와 교리적인 문제를
동시에 수반하고 있다고 하겠다.

5. 결 론

본 장을 마감함에 있어서, 리베르틴파에 대항하는 칼빈의 논거가 이

67) TAL, p. 256 (CO VII. 196: Nous voyons donc, comment il ne nous
est pas loisible d'attenter à faire iugemens de nostre teste: qu'aussi
il nous faut tenir pour bon, ce que Dieu a iugé: et quasi le ratifier
en nous y accordant. Ainsi pour lay donner tesmoignage qu'il est
bon iuge et equitable: condamnons avec luy toutes meschantes oeu-
vres: et pareillement, suyvens son admonition, iugeons de la bonté
de l'arbre selon les fruitz).

68) TAL, p. 256 (CO VII. 196).

69) TAL, p. 250 (CO VII. 192).

증적이라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하나는 신학적인 면이고 다른 하나는 실천적인 면이라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신학적인 면에서 칼빈은 자신이 주장하는 바 하나님의 섭리교리에 절대적으로 해악스러운 리베르틴파의 범신론적 결정론을 비난한다. 실천적인 면에 대해서 칼빈은 양심과 도덕적 판단을 폐지시켜 버린, 리베르틴파의 범신론적 결정론이 끼친 제결과들을 경고하고 있다. 리베르틴적 결정론이 끼친 윤리적 제결과들의 중차대한 문제점은, 칼빈이 그의 「반론」 제19, 20, 21장에서 “개인적인 종교생활 및 사회, 경제 등에 끼친 리베르틴파의 영향력”을 각기 개별적으로 계속 다루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도 분명한 사실이다. Verhey도 역시 “칼빈의 견해로는 섭리교리에 대해 리베르틴파의 결정론적이고도 철학적인 제결과들이 끼친 손상 못지 않게 윤리적인 제결과들도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들의 삶에 손상을 입히고 있다”고 단언한다. <계속>

70) TAL, p. 258 (CO VII. 198 : Car tout leur plaisir est de se donner du bon temps et estre sans soucy).

71) Verhey, p. 181.

主日學校 成長論 小考

韓 春 基

<기독교교육>

18세기 이래로 교회성장은 주일학교의 활동, 전도 그리고 성장에 힘입었다고 할 수 있다. 1780년 로버트 레익스(Robert Raikes, 1735—1811)에 의하여 영국 글로우체스터에서 시작한 주일학교는 짧은 기간 내에 영국 전역뿐 아니라 미국에까지 확대되었고 10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되어 지금까지 성장해 오고 있다. 이러한 주일학교의 성장은 교회의 성장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역자들과 교회의 관심은 지대하다고 하겠다. 나아가 주일학교의 성장은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데 이것은 비신자의 신자화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지상명령이라는 데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마 28 : 19—20). 주일학교의 성장은 200년의 역사를 통하여 분석하여 본다고 하여도 그 원인을 교역자 및 평신도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에서 찾을 수 있겠다. 그러나 이에 덧붙여 무시할 수 없는 원인과 이유로서는 해당 사회나 국가의 인구의 증감을 지적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 본론인 주일학교의 성장론을 논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사회의 인구현황을 그리고 다음으로 교육인구 및 주일학교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인구현황

인구문제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보는 각도에 따라 대책과 관점을 달리한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주택, 식량, 교육, 교통 등의 대책에 주로 관심의 집중이 될 것이고, 교회의 차원에서는 인구증가에 따른 교